

2010년 4분기 IT산업 리스크 분석

I. IT산업 수출입 현황	3
II. 반도체 산업 동향	5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5
2. 전망 및 주요 이슈	7
III.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10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10
2. 전망 및 주요 이슈	12
IV. 휴대폰 산업 동향	15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15
2. 전망 및 주요 이슈	19

작성 : 책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안상술 (3779-6670)
ssahn@koreaexim.go.kr

< 요약 >

□ 2010년 4분기 IT 수출,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한 407.5억 달러

- 종전 최대인 지난 3분기 403.9억 달러보다 3.6억 달러 증가
- 주력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호조로 월간 130억 달러 대 수출 7개월 연속 실현
-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의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1~3분기에 비해 축소

□ 4분기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한 129.4억 달러

- 극심한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분기 141.3억 달러보다는 8.4% 하락
-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년 대비 3.2% 성장한 3,140억 달러 전망
 - 1분기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5.3% 하락한 742.9억 달러로 추정
- 메모리 부문은 기저효과와 공급과잉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 시스템반도체는 IT융합, 스마트화 등으로 연간 5.2%의 견조한 성장을 이룰 전망

□ 4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전분기 대비 10.5% 하락한 82.7억 달러

- LCD 패널 가격 하락세, 유럽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수출이 하락세
- 2011년 세계 LCD 패널 시장은 2분기부터 수급 개선 전망
 -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던 LCD 패널 가격이 2011년 2월 경을 기점으로 안정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 4분기 휴대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한 75.7억 달러

- 전년동월 대비 9개월 연속 감소해 오던 수출이 국내 업체들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로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 2010년 들어 처음으로 분기별 증가세 회복
- 2011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 지속 및 제품 다양화, 중국 등 신흥 시장 부상으로 전년 대비 10% 내외의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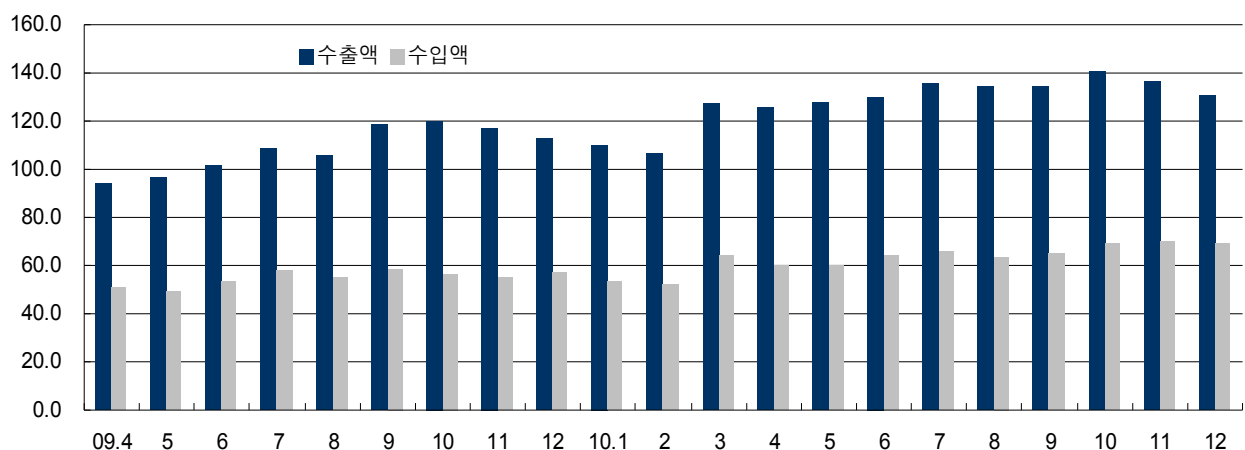
I. IT산업 수출입 현황

□ 4분기 IT 수출,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한 407.5억 달러

- 2010년 4분기 IT 수출은 종전 최대인 지난 3분기 403.9억 달러보다 3.6억 달러 많은 407.5억 달러 기록
- 주력 IT 수출 품목인 반도체, 패널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130억 달러 대 수출, 10월에는 월간 사상 최대치인 141억 달러 기록
-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 하락 영향과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1~3분기에 비해 크게 줄어듦.
-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10년 1분기 47.2% → 2분기 31.3% → 3분기 21.3% → 4분기 16.3%
- 2010년 연간 IT수출도 전년대비 27.3% 증가한 1,540억 달러, IT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2.7% 증가한 78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를 크게 상회
- 반도체(507억 달러, 전년 대비 63.4% 증가)는 '09년 글로벌 반도체 치킨 게임 승리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수요 증가로 고성장 기록
- 단일 수출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연수출 500억 달러에 진입하였으며, 선박, 자동차, 휴대폰 등을 제치고 '전체 수출 1위 품목'에 등극
- 디스플레이 패널(337.8억 달러, 전년 대비 27.4% 증가)은 월드컵 등 스포츠 특수 및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으로 2001년 이후 9년 연속 수출 증가세
- 휴대폰(247.6억 달러, 전년 대비 13.7% 감소)은 연초 스마트폰 지연 대응, 해외 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3분기까지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첫 증가세 기록

IT산업 월별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 4분기 IT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3.8% 증가한 208.7억 달러 기록
- 경기회복에 따른 컴퓨터 및 주변기기·휴대폰 등 IT기기와 전자부품의 수입 증가 영향

IT산업 분기별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전체산업	IT산업		전체 산업	IT 산업
2009년	1분기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분기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3분기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분기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연간	3635.3	1209.5	-7.8	3230.9	620.1	-15.6	404.5	589.4
2010년	1분기	1010.9	344.1	47.2	981.3	170.3	34.0	29.6	173.8
	2분기	1202.5	384.0	31.3	1057.4	183.9	19.6	145.1	200.1
	3분기	1171.2	403.9	21.3	1056.9	194.8	14.1	114.3	209.2
	4분기	1289.5	407.5	16.3	1161.2	208.7	23.8	128.3	198.9
	연간	4674.1	1539.5	27.3	4256.8	757.7	22.2	417.3	782.0

자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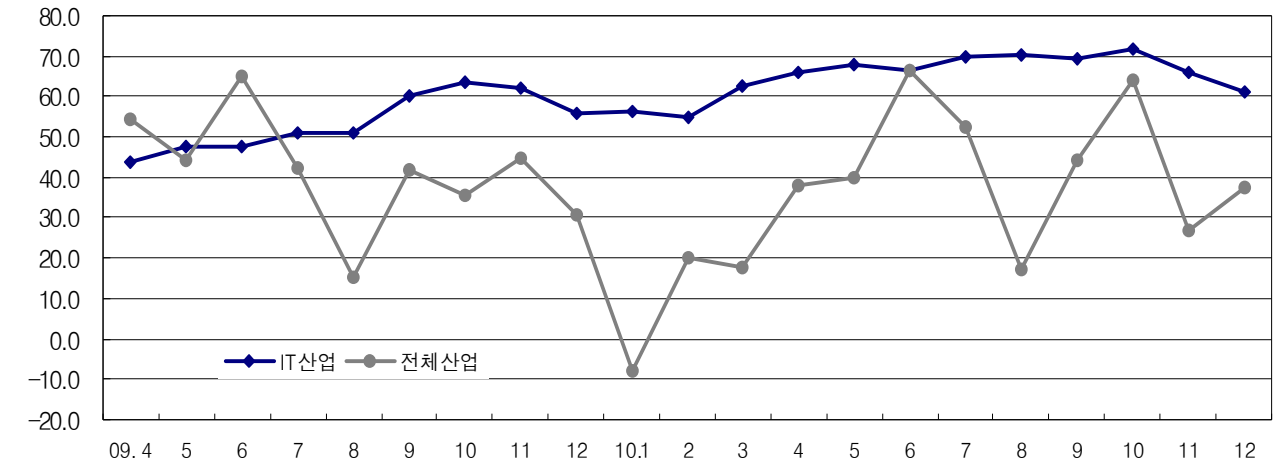
- 향후 IT 수출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신규 IT 품목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유지하겠지만, 증가폭은 줄어들 전망
-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의 단가 하락 및 재고 증가, 주요 수출시장의 성장 정체 등의 영향

□ 4분기 IT산업 무역 흑자 전년동기 대비 9.4% 상승한 198.9억 달러

- 2010년 연간으로는 7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7% 증가해, 전체 무역흑자 417.3억 달러를 크게 상회
- 2009년 4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시작돼, 전년동기 대비 무역흑자 증가율은 1분기 63% → 2분기 44.2% → 3분기 29.0% → 4분기 9.4%로 줄어들고 있음.

IT산업 월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II. 반도체 산업 동향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4분기 세계 D램 반도체 매출, 전분기 대비 20% 감소한 86.4억 달러

-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의하면 4분기 D램 반도체 매출 규모는 86.4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0% 감소
 - 생산량은 16% 늘었지만 D램 고정거래가격이 40% 하락했기 때문
- iSupply 발표에서도 4분기 D램 반도체 매출액은 86.9억 달러로 전분기 106.8억 달러보다 19% 하락.
- 반도체 공정기술이 40~50나노급으로 이전되면서 생산량은 16% 증가¹⁾했지만, PC 판매량은 부진한 탓에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4분기 DDR3 2GB의 평균 판매가는 24달러로 3분기 40달러에서 40% 하락. DDR3 1Gb 1333MHz의 현물가격은 전분기 대비 37% 하락한 1.51달러, DDR2 1Gb 800MHz는 22%하락한 1.57달러 기록
- 전체 시장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기회가 됨.

1) 반도체 제조 공정이 미세해 질수록 웨이퍼 한 장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수는 늘어남. 예를 들어 40나노급 공정에서 30나노급으로 전환한다면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칩 수가 60% 증가

- 삼성전자는 4분기에 35억 달러의 매출로 3분기에 비해 19.1% 감소했으나 시장 점유율은 40.4%에서 40.7%로 소폭 상승.
- 하이닉스도 19억 달러의 매출로 3분기 점유율 19.8%에서 21.9%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61.2%에서 63.7%로 늘어남.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업체명	4Q10		3Q10		전분기대비 증감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1	삼성전자	3,520	40.7%	4,353	40.4%	-19.1%
2	하이닉스	1,893	21.9%	2,139	19.8%	-11.5%
3	Elpida	1,176	13.6%	1,736	16.1%	-32.3%
4	Micron	1,036	12.0%	1,296	12.0%	-20.1%
5	Nanya	365	4.2%	449	4.2%	-18.7%
6	Powerchip	193	2.2%	275	2.6%	-29.8%
7	ProMos	163	1.9%	170	1.6%	-4.1%
8	Winbond	152	1.8%	197	1.8%	-22.8%
	기타	146	1.7%	164	1.5%	-11.0%
	총합	8,643	100.0%	10,778	100.0%	-19.8%

자료: DRamExchange, 2011년 2월

□ 4분기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한 129.4억 달러 기록

- 4분기 반도체는 극심한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분기 141.3억 달러보다 8.4% 하락한 129.4억 달러 수출
 - D램(41.7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13.6% 증가)은 PC D램 탑재량 성장을 둔화, 북미, 유럽 시장 등의 수요 약세 기조 등으로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보다 8.6% 하락하는 등 수출증가세 축소
 - 낸드플래시(6.8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SSD 등의 수요 증가로 11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수출증가율이 다시 회복
 - 시스템 반도체(46.1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25.9% 증가)는 IT융합, 스마트화 등으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해 D램 반도체(41.7억 달러)를 넘어선 46.1억 달러 수출 기록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D램		낸드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09.7	27.0	△15.6	13.3	△23.3	8.1	△25.0	1.6	△31.5		
8	28.8	△7.2	14.7	△12.7	8.7	△20.6	2.0	△2.4		
9	32.1	9.2	16.0	10.5	9.3	9.6	2.1	24.5		
3분기	87.9	85.4	44.0	57.7	26.1	38.8	5.7	△121.2		
10	34.3	36.4	17.8	56.0	10.5	69.1	2.4	86.1		
11	35.0	80.1	19.4	114.1	12.4	141.1	2.0	78.0		
12	34.4	125.5	20.0	174.8	13.8	186.4	1.8	132.4		
4분기	103.7	144.0	57.2	167.3	36.7	191.3	6.2	△115.5		
'10.1	33.0	120.6	19.6	171.8	13.8	215.1	2.1	110.0	10.1	52.8
2	33.5	117.9	19.3	144.6	13.0	195.9	2.1	92.5	10.5	73.0
3	40.4	123.0	22.8	163.9	15.1	204.1	2.4	81.9	12.4	61.5
1분기	106.9	120.4	61.7	159.2	41.9	203.6	6.6	94.1	33.0	62.1
4	41.8	97.6	24.6	150.1	16.0	201.3	2.5	77.9	12.3	30.8
5	43.9	82.6	26.1	127.5	17.6	179.1	2.4	40.2	12.9	22.9
6	43.8	74.2	25.3	103.2	16.7	141.8	2.4	48.6	13.2	27.0
2분기	129.5	84.5	76.0	125.5	50.3	171.9	7.3	55.3	38.4	26.8
7	46.2	70.8	26.4	98.5	17.8	119.6	2.4	53.4	14.1	24.3
8	47.4	64.9	27.9	90.4	18.8	116.9	2.5	26.9	14.2	23.6
9	47.7	48.6	26.6	65.8	17.5	86.9	2.2	4.3	15.3	18.4
3분기	141.3	60.8	80.9	83.9	54.1	107.3	7.1	24.6	43.6	21.9
10	45.6	32.8	24.5	37.6	16.4	56.1	2.1	△8.9	15.1	15.1
11	41.3	18.1	20.3	4.4	12.7	2.9	2.2	11.0	15.6	25.9
12	42.5	23.5	21.4	7.2	12.6	△8.9	2.5	39.9	15.4	38.5
4분기	129.4	24.8	66.2	15.7	41.7	13.6	6.8	9.7	46.1	25.9

자료: 지식경제부

주: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2010년부터 집계

2. 전망 및 주요 이슈

□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년대비 3.2% 성장한 3,140억 달러 전망

- 시장조사업체 iSupply는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올해보다 3.2% 성장한 3,140억 달러로 전망
- 1분기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5.3% 하락한 742.9억 달러로 추정

- 메모리 부문은 기저효과와 공급과잉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시스템반도체는 IT융합, 스마트화 등으로 연간 5.2%의 견조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1분기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6% 하락한 160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는 5.1% 하락한 583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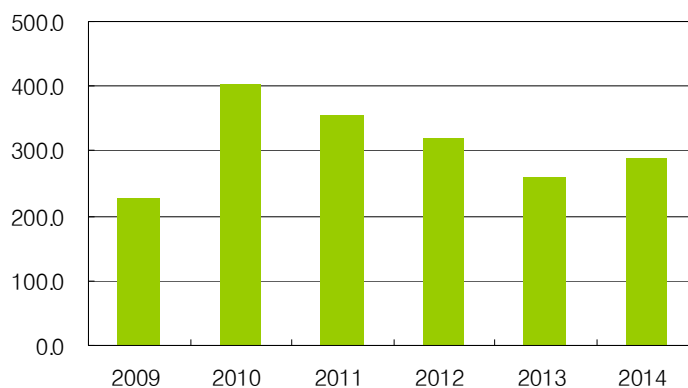
구 분	2009	2010					2011 ^e		
		1Q	2Q	3Q	4Q ^e	연간	1Q	2Q	연간
반도체	2,289.0	703.1	754.4	797.9	784.7	3,040.1	742.9	765.9	3,138.4
증가율	△11.9%	2.0%	7.3%	5.8%	△1.7%	32.8%	△5.3%	3.1%	3.2%
메모리반도체	441.0	159.2	176.3	181.6	170.3	687.4	160.0	159.7	664.1
증가율	△3.6%	5.0%	10.7%	3.0%	△6.2%	55.7%	△6.0%	△0.2%	△3.4%
시스템반도체	1,848.0	543.8	578.1	616.3	614.4	2,352.6	582.8	606.1	2,476.1
증가율	△13.6%	1.0%	6.3%	6.6%	△0.3%	27.3%	△5.1%	4.0%	5.2%

자료: iSupply

- 특히 iSupply는 지난해 77.5% 급성장을 기록한 D램 시장이 평균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3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11년에는 지난해 403억 달러에서 11.8% 하락한 355억 달러로 줄어들고, 2012년에는 321억 달러, 2013년에는 261억 달러 규모로 축소돼 매년 1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 다만, 2009년 D램 시장의 6.2%를 차지했던 모바일 D램의 수요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의해 2014년까지 D램 시장의 16.5%까지 성장하며 시장 판매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

세계 D램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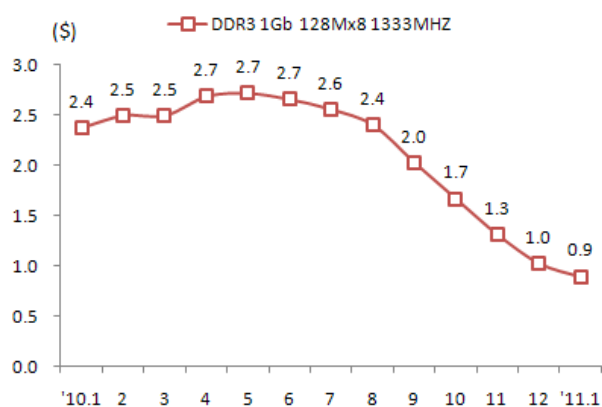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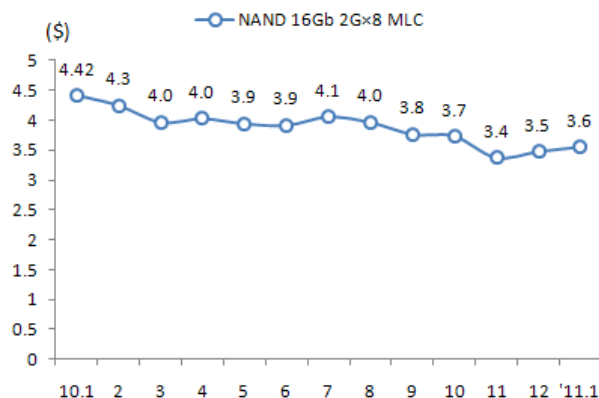
자료: iSupply

- 고정 가격 기준으로 4분기에 약 50% 가량 하락했던 D램 가격은 1월을 전후로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우세
- DRAmExchange에 의하면 D램 주력 제품인 DDR3 1Gb의 현물가격은 작년 3월 3.07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월 1.05달러까지 떨어진 이후 2월 들어 20%가량 상승
- 현물 가격이 오르면 기업간 고정 거래 가격도 1~2개월 뒤 따라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D램 반도체 가격의 반등시기가 1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D램 현물 가격 추이



낸드플래시 현물 가격 추이



자료: DRAmExchange

□ 국내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

-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체 시장규모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2008년까지 50%에 미치지 못했던 국내 기업들의 2010년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63.7%(DRAmExchange 추정)로 더욱 확대

메모리 반도체 국내업체 점유율

(단위: 억 달러, %)

DRAM	2007	2008	2009	2010 1Q	2010 2Q	2010 3Q
국내업체	153.8	119.5	125.0	50.8	60.3	65.4
세계시장점유율	49.0%	49.0%	54.4%	53.3%	56.2%	60.9%

NAND	2007	2008	2009	2010 1Q	2010 2Q	2010 3Q
국내업체	83.0	62.4	64.0	19.8	22.4	23.2
세계시장점유율	54.5%	47.4%	44.6%	41.5%	43.5%	43.7%

자료: Gartner, 지식경제부

- '07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불황을 거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해, 후발 업체들과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
- 국내 업체의 공격적인 설비 및 R&D 투자 확대로 후발 업체와의 격차는 1년 이상 벌어짐.
- 이와 함께 국내 업체들은 최근 가격 하락폭이 컸던 PC용 D램 외에도 고부가 제품인 낸드플래시, 모바일 D램 등의 비중이 높아 제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수
- 이러한 차이로 인해 향후 D램 시장은 국내 업체 2강 체제로 진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 우세
- 올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때에도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예측

III.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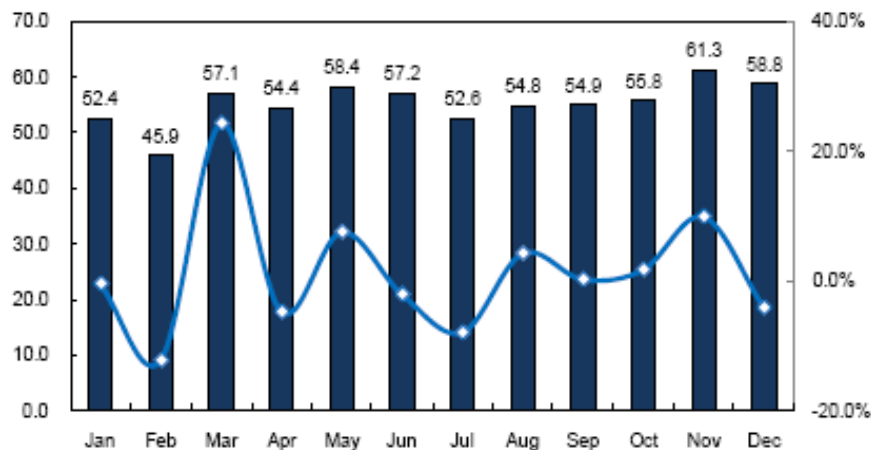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4분기 세계 LCD패널,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8% 증가, 매출액은 7% 감소

- DisplayBank에 의하면 2010년 4분기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총 1억7,590만대로 전분기 대비 8% 증가
- 그러나 급격한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금액 기준 시장 규모는 전분기 대비 7% 하락한 180억 달러에 그침.

월별 대형 LCD 패널 출하량 추이

(단위: 좌-백만대, 우-%)



자료: DisplayBank.

— 전월 대비 증가율(%) ■ 출하량(백만대)

- 2010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5.6% 상승한 6억 6,370만대 출하량 기록
 - 평균 판매 사이즈 확대로 출하면적 기준으로는 출하량 상승분보다 높은 35.4% 성장했지만, 하반기 가격 하락으로 전체 매출규모는 26.7%만 상승
- 2010년 패넬 시장은 상반기에 세트업체들이 확보한 재고가 하반기에 소진되지 못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고하저 현상이 두드러짐.
 -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상승을 대비해 세트업체들이 조기에 패넬재고를 다량 확보했으나, 하반기에 수요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지면서 패넬 단가 하락이 연말까지 이어짐.
- 월별로는 상반기에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다 3분기에 들어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4분기에 들어서면서 연말 성수기와 가격 하락이 수요를 견인해 11월에는 출하량이 사상 처음으로 6천만대 선을 넘어섬.
 - 패넬 단가 하락도 4분기에 들어서 진정세에 들어섬. 그러나 하반기에 이어진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금액 기준 시장 규모는 2분기 이후 계속 축소.
- 업체별로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각각 출하대수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25.9%와 22.9%를 차지
 - LG디스플레이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액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섬.
 - 매출액 기준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50.2%로, 국내 업체들의 경우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TV의 비중이 높아 출하대수 기준 48.9%보다 높게 나타남.

□ 4분기 패넬 수출, 전분기 대비 10.5% 하락한 82.7억 달러 기록²⁾

- 4분기 패넬 수출은 82.7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의 77.8억 달러보다는 6.3% 증가했으나, 전분기 92.4억 달러보다는 10.5% 하락
 - 2010년 하반기 이후 LCD 패넬 가격 하락세, 유럽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수출이 하락세
- * 전분기 대비 수출 증감 추이 : ('10.2분기) 13.1%→(3분기) 7.1%→(4분기) △10.5%
- 연말 성수기가 포함된 12월말 북미 LCD TV 판매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였고, 패넬 단가 하락세도 마무리되고 있어 향후 수출은 긍정적인 전망

2) 부분품 포함 수치

- 중국의 춘절 LCD TV 재고 소진과 신규 모델 출시를 위한 패널 구매가 2월부터 본격화되면, 대만 등 경쟁업체들에 비해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삼성전자, 소니, LG전자 등)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 확대는 용이할 것으로 예측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09.7	8	9	10	11	12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금액	25	26	26	27	25	26	25	23	28	28	29	29	32	32	29	29	27	27
증감률	5.1	7.8	4.1	10	35	114	100	56	46	40	38	28	28	25	8.9	8.7	9.5	0.8
	'09. 3분기			4분기			'1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금액	76.8			77.8			76.3			86.3			92.4			82.7		
증감률	5.6			41.8			63			35.5			20.3			6.3		

자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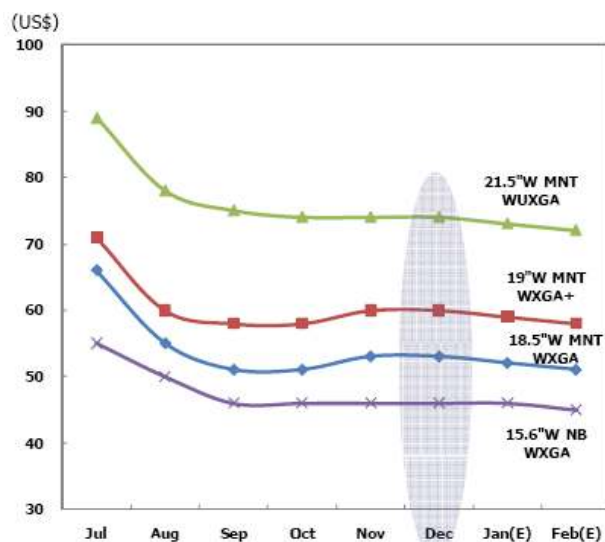
주: 부분품 포함

2. 전망 및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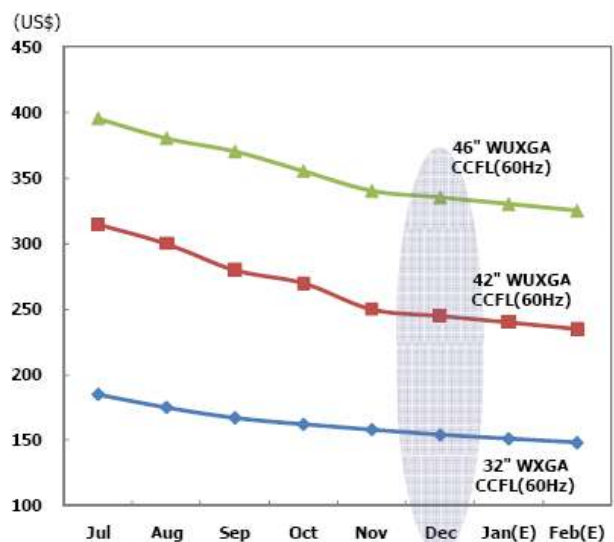
□ 글로벌 LCD 패널 산업, 2분기부터 수급 개선 전망

-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던 LCD 패널 가격이 2011년 2월경을 기점으로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 TV용 제품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고, 연말부터 포함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니터와 노트북용 LCD 패널이 가격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어 반등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예측

IT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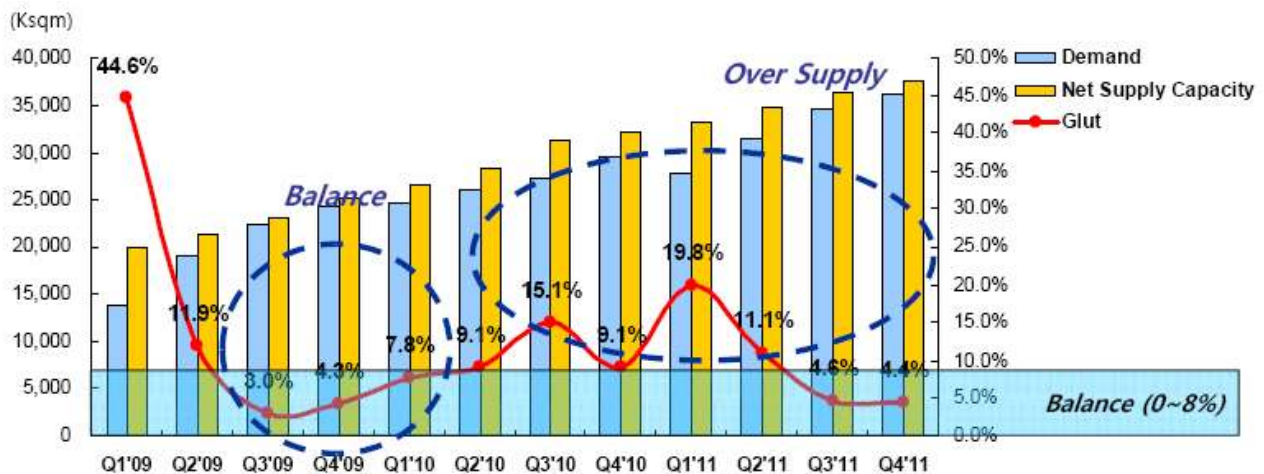
LCD TV 패널



자료: DisplayBank

- 그러나 201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대만의 AUO 등의 신규 8세대 라인이 가동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BOEOT를 비롯해 중국의 3개사의 8세대 라인이 가동될 예정이어서 2011년 순공급능력은 20.8% 증가될 예정
- 따라서 상반기에는 약 15.4%의 초과 공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됨.
- 3월부터 TV 신규모델 수요와 5월 노동절 대비한 재고축적 수요가 도래하기 때문

글로벌 LCD 패널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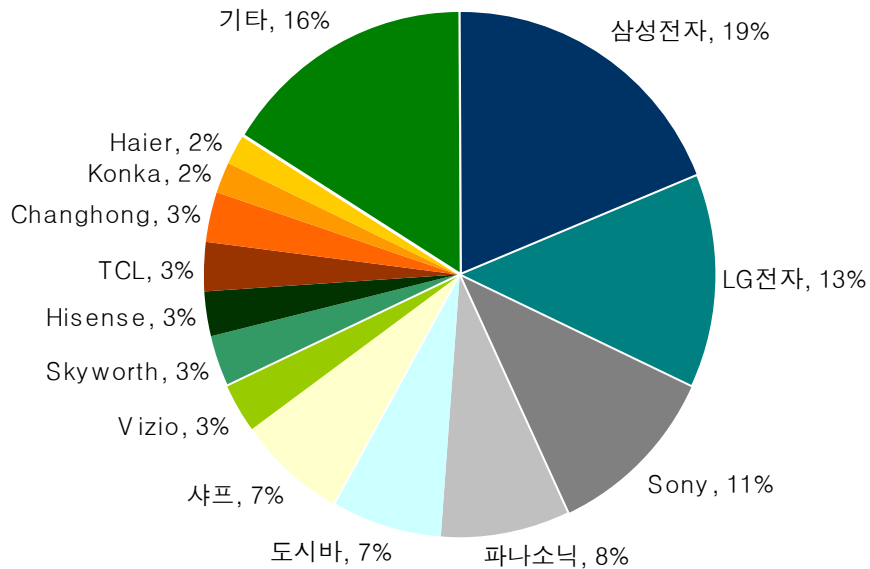
자료: DisplayBank

□ 2010년 전세계 평판 TV 출하량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제품

- 디스플레이뱅크에 의하면 2010년 LCD TV 시장은 1억8,790만대로 전년 대비 31% 성장했으며, PDP TV 시장은 1,824만대로 전년대비 29% 성장한 것으로 집계
-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총 6,680만대의 평판TV를 출하하며 전체 출하량의 33%를 차지
- 업체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420만대를 출하하며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와 소니가 각각 2,320만대와 2,160만대로 2위와 3위를 차지
- 2010년 LED LCD TV 출하량은 3,750만대를 기록, 매분기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
- 지난 4분기 LCD TV 출하량에서 LED BLU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10대

중 3대는 LED LCD TV로 출하

2010년 평판 TV 출하 동향



자료: DisplayBank

- 2010년 평판 TV 시장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 짧아진 TV 교체 시기(과거 CRT: 10년, 최근 FPD TV: 약 5~7년)
 - 평판 TV 가격의 급격한 하락
 - 가구당 TV 보유 대수의 확대 (세컨드 TV 수요 증가)
 - 각국의 정부 지원 정책 (중국의 가전하향, 일본의 에코포인트 정책 등)
 - 디지털 방송 전환 등이 꼽힘.
- **2011년 평판 TV시장은 2억3,308만대 규모로 전년대비 13% 성장할 전망**
 - 이 가운데 LCD TV는 전년대비 15% 성장한 2억1,538만대, PDP TV는 전년대비 3% 하락한 1,770만대를 기록할 전망
 - 2011년은 TV시장 주도권이 선진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면서, TV시장 성장율은 2010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

IV. 휴대폰 산업 동향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4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전년동기 대비 17.9% 성장

- IDC에 의하면 4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량은 4억 140만대로 2009년 4분기 3억 4,050만대에 비해 17.9% 성장
- 업체별로는 노키아가 1억 2,370만대로 시장점유율 30.8%를 차지하며 1위를 지켰고, 삼성전자가 20.1%로 2위, LG전자가 7.6%로 3위, ZTE가 4.2%로 4위, 애플이 4.0%로 5위를 차지
 - 삼성전자가 전년동기에 비해 출하량을 17.3% 늘리며 2위를 지켰고, 4위인 ZTE와 5위 애플이 출하량을 76.8%, 86.2%씩 늘리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
 - 반면, 노키아와 LG전자는 연중 최고 성수기인 4분기에 출하량 감소세를 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축소
- 특히 신흥시장에서 주로 저가 피쳐폰을 판매하는 ZTE가 애플을 밀어내고 4위에 올라서,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상위 5위 업체에 랭크
 - ZTE는 그동안 중국 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에서 사업을 펼쳐 왔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서유럽시장 진출에도 성공
 - ZTE는 전통적으로 초기, 중급 휴대폰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의 블레이드(Blade)와 레이서(Racer) 등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비중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

2010년 4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 %)

순위	공급 업체	4Q 2010		4Q 2009		전년동기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노키아	123.7	30.8%	126.8	37.2%	-2.4%
2	삼성전자	80.7	20.1%	68.8	20.2%	17.3%
3	LG전자	30.6	7.6%	33.9	10.0%	-9.7%
4	ZTE	16.8	4.2%	9.5	2.8%	76.8%
5	애플	16.2	4.0%	8.7	2.6%	86.2%
6	기타	133.4	33.2%	92.8	27.3%	43.8%
합계		401.4	100%	340.5	100%	17.9%

자료: IDC, 2011년 1월

□ 2010년 세계 휴대폰 시장, 전년 대비 18.5% 성장

- 시장조사기관 IDC에 의하면 2010년 연간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13억 9,000만대를 기록, 2009년 출하량인 11억7,000만대 대비 18.5% 성장
 - 이러한 성장세는 22.6%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세로 2009년 시장 약세(-1.6%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경기 회복과 더불어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된 영향
- 업체별로는 노키아가 전체 시장점유율 32.6%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20.2%로 2위, LG전자가 8.4%로 3위, ZTE가 3.7%로 4위, RIM이 3.5%로 5위를 기록
 - 스마트폰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삼성전자는 출하량을 전년 대비 23.3% 늘리면서 사상 최초로 세계 시장 20% 돌파. 반면 스마트폰 대응이 늦었던 LG전자는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1% 감소

2010년 세계 휴대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 %)

순위	공급 업체	2010		2009		전년대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노키아	453.0	32.6%	431.8	36.9%	4.9%
2	삼성전자	280.2	20.2%	227.2	19.4%	23.3%
3	LG전자	116.7	8.4%	117.9	10.1%	-1.0%
4	ZTE	51.8	3.7%	26.7	2.3%	94.0%
5	RIM	48.8	3.5%	34.5	2.9%	41.4%
6	기타	437.7	31.5%	333.5	28.5%	31.2%
합계		1388.2	100.0%	1171.6	100.0%	18.5%

자료: IDC, 2011년 1월

□ 4분기 휴대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한 75.7억 달러 기록³⁾

- 4분기 휴대폰 수출은 75.7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의 68.8억 달러보다 25.3% 증가
 - 전년동월 대비 9개월 연속 감소해 오던 수출이 2010년 들어 처음으로 분기별 증가세 전환
- 국내 업체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로 10월 이후 휴대폰 수출 증가세 회복
 - 4분기 스마트폰 수출량은 30.6억 달러로 휴대폰 수출액의 40%를 차지, 품목별로도 휴대폰 부분품 수출량을 넘어서기 시작

3) 부분품 포함 수치

- 2010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17% 증가한 65.4억 달러로 휴대폰 수출 회복을 견인하며 수출 주력 품목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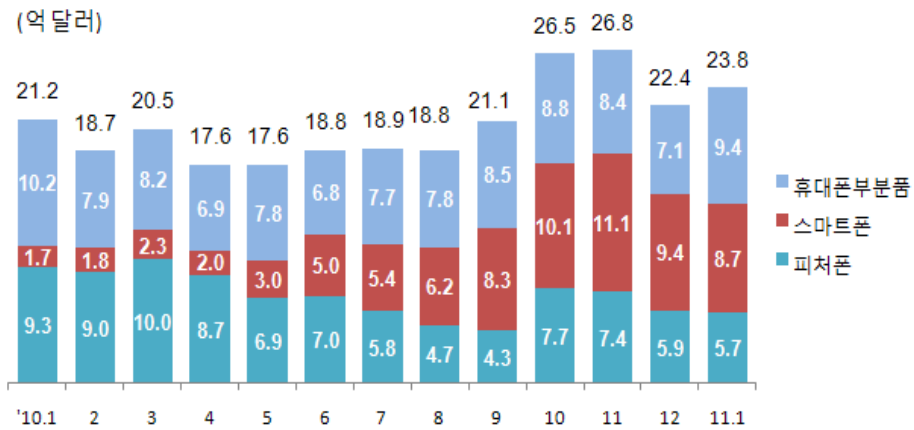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09.7	8	9	10	11	12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금액	26.2	22.8	25.1	25.8	24.6	18.4	21.2	18.7	20.4	17.5	17.5	18.7	18.9	18.8	21.1	26.5	26.8	22.4
증감률	△11.4	△18	△22.6	△31.3	2.7	12.8	△3.4	△21	△14.8	△28.2	△29.8	△25.5	△27.7	△17.6	△16.1	2.9	8.9	21.7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금액	74.1			68.8			60.4			54			58.8			75.7		
증감률	△17.5			△11.6			△18.8			△27.1			△14.5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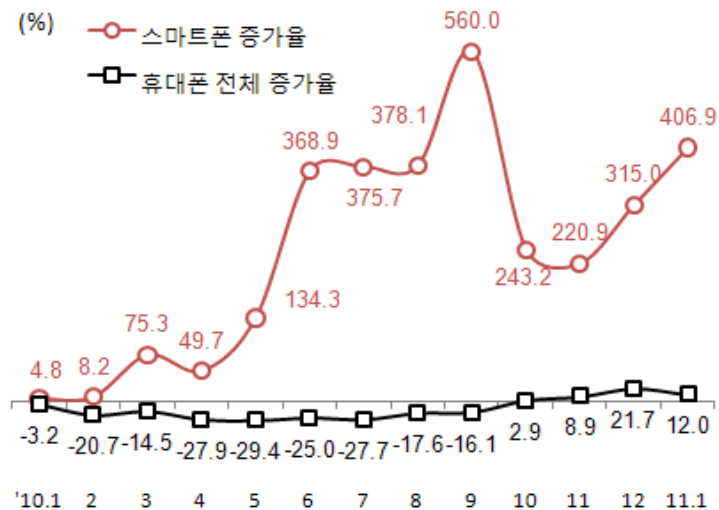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휴대폰 품목별 수출 추이



휴대폰 전체 및 스마트폰 수출 월별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 대비)



자료: 지식경제부

2. 전망 및 주요 이슈

□ 2011년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전년 대비 10% 내외 성장 전망

- 글로벌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 지속 및 제품 다양화, 중국 등 신흥 시장 부상으로 전년 대비 10% 내외의 성장 예상
 - 시장조사기관별로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Gartner 9.8%, Strategy Analytics 6.3%, Oppenheimer 8.8% 성장 전망
- 특히 '11년 스마트폰 시장(1,006억 달러)은 금액 및 물량 측면에서 휴대폰 시장을 주도하며, 피쳐폰 시장(844억 달러)을 넘어설 전망
 - 스마트폰의 대중화, 업체 간 가격 경쟁 심화, 신흥 시장의 비중 증가 등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등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측
- 중국 및 유럽의 3G 보급률 확대, 견조한 스마트폰 교체 수요 및 신흥 시장 신규 수요가 글로벌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
 - 특히 Gartner는 휴대폰 교체 수요 비중이 '08년 62.8% → '09년 64.1% → '10년 74.7% → '11년 77.9%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글로벌 휴대폰 및 스마트폰 시장 전망

구분		2009	2010	2011 ^P
금액	휴대폰 전체 (억 달러)	1,546	1,733	1,850
	성장률	-6.0%	12.1%	6.8%
	스마트폰 (억 달러)	571	851	1,006
	성장률	17.2%	49.0%	18.1%
	비중	36.9%	49.1%	54.4%
대수	휴대폰 전체 (억 대)	11.5	13.1	14.4
	성장률	-2.7%	13.9%	10.0%
	스마트폰 (억 대)	1.7	2.6	3.4
	성장률	16.2%	55.1%	30.7%
	비중	14.8%	20.2%	24.0%

자료: Strategy Analytics

□ 스마트폰, 2012년에는 PC 출하량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성장 전망

- 최근 Morgan Stanley는 2012년경이면 스마트폰 출하량이 노트북과 데스크탑 PC 출하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
- 2010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87.2% 성장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노키아, 애플, RIM, 삼성전자, HTC 순

- 삼성전자는 전년동기 대비 439%를 성장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HTC도 258%, 애플도 86%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 시현
- 반면 노키아는 전년동기 대비 36.1%, RIM도 36.4% 밖에 성장하지 못해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함.
- 전분기와 비교할 때에도 노키아, 애플, RIM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 HTC는 점유율을 늘려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

2010년 글로벌 스마트폰 빅5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IDC

- 2010년 연간 세계 스마트폰 시장도 전년대비 74.4% 성장해 전체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
-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노키아가 33.1%로 1위, RIM이 16.1%로 2위, 애플이 15.7%로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7.6%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빅5에 진입하였으며 HTC도 7.1%를 차지하며 5위를 차지
-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로 시장 입지를 크게 확대한 데 이어 바다 OS를 탑재한 웨이브폰이 400만대 가까이 팔리면서 전년대비 318% 성장해, 성장률 측면에서 다른 업체들을 압도
- 지난해 2천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삼성전자는 2011년 약 6천만대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 올 여름 아이폰5를 출시할 애플과 치열한 톱2 경쟁을 벌일 전망

2010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 %)

순위	공급 업체	2010		2009		전년대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노키아	100.3	33.1%	67.7	39.0%	48.2%
2	RIM	48.8	16.1%	34.5	19.9%	41.4%
3	애플	47.5	15.7%	25.1	14.5%	89.2%
4	삼성전자	23	7.6%	5.5	3.2%	318.2%
5	HTC	21.5	7.1%	8.1	4.7%	165.4%
6	기타	61.5	20.3%	32.6	18.8%	88.7%
합계		302.6	100.0%	173.5	100.0%	74.4%

자료: IDC, 2011년 2월

□ 해외 출하 비중 증가로 수출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

- 국내 기업들의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확대로 '해외 생산 후 직수출' 물량이 증가해 휴대폰 수출(통관 기준)은 다소 둔화될 전망
- 해외 출하 비중은 '09년 58%에서 '10년 3분기 누적으로 63%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 발생

국내업체 해외 출하 비중 및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억 대, % : 전년(동기)대비)

구분	2008	2009	1~3분기	2010		
				1분기	2분기	3분기
글로벌 출하	302.0	354.4	292.2	93.5	96.7	102.0
(증감률)	21.2%	17.4%	17.4%	33.2%	14.3%	8.4%
국내 출하	162.7	147.9	108.8	35.8	37.4	35.6
(증감률)	3.4%	-9.1%	-2.2%	1.3%	-6.9%	-0.3%
해외 출하	139.3	206.5	183.4	57.7	59.3	66.4
(증감률)	51.9%	48.3%	33.2%	65.5%	33.6%	13.7%
해외출하 비중	46.1%	58.3%	62.8%	61.7%	61.3%	65.1%
세계 시장 점유율	25.7%	30.9%	31.4%	32.1%	31.1%	31.0%

자료: 지식경제부